

# “1달러면 빵·생수 4개”...튀르키예 여대생 눈물의 호소

간발의 차로 목숨 건졌지만 자매와 같던 친구들 숨지고 부상  
한국인 남자친구 만나러 광주 오자마자 고향 지진에 눈물로 지새  
많은 사람 집 잃고 추위에 떨어... 피해수습에 광주 온정 절실

“지진으로 친구와 가족을 잃은 튀르키예인들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19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커피숍에서 만난 튀르키예 대학생 실란 바이람(Silan Bayram·여·21)씨의 말이다.

이번 지진으로 집과 친구를 잃은 바이람씨는 “현재 리라(튀르키예 통화)가치가 폭락해 1달러면 빵과 생수 3-4개를 살 수 있다”며 “튀르키예인들에게 적은 돈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람씨는 지난 3일 전남대에 다니는 남자친구 정승우(20)씨를 만나기 위해 튀르키예에서 광주를 찾았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지난 6일 오전 10시 30분쯤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번 지진으로 바이람씨가 사는 디야르바키르(Diyarbakir) 지역과 그가 다니는 대학이 있는 말라티야(Malatya) 지역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 디야르바키르에서는 바이람씨의 15년지기 친구

들이 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친구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이야기를 꺼내기 고스름러운 듯 표정을 찡그리던 그는 “9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4층에 거주하던 내 친구 담라(Damla Urakci·여·21)가 5일 만에 부모형제와 함께 주검으로 발견됐고, 8층에 살던 친구 데르야(Derya Yilmaz·여·22)는 가족과 함께 이를 만에 발견했으나 건물 잔해에 깔려 팔을 절단해야 했다”며 “데르야는 아직 자신의 가족이 사망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울먹였다.

바이람씨는 “이들과는 같은 초·중학교를 나와 수시로 서로의 집에서 잠을 자던 자매와 같은 사이였다”며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친구집에서라도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바이람씨 가족의 집은 지진으로 균열이 생겨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고, 말라티야 지역에 있는 대학 친구들은 소식을 끊긴 지 오래다.

그는 피해 소식을 전해들은 후 곧바로 튀르키예로 돌아가려 했지만 여진이 계속 발생해 한국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바이람씨는 “부모님이 차라리 한국이 안전하니



실란 바이람씨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며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지 못하고 며칠동안 눈물만 흘렸다”고 말했다.

4년여 전 미국 애리조나 유학 중 바이람씨를 만난 정승우씨는 “여자친구가 지금은 한국에 있어 슬픔이 조금 가라앉았지만, 오는 23일 튀르키예에 돌아가면 슬픔이 커질 것이다”며 “여자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으며 함께 슬픔을 극복하려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바이람씨는 “튀르키예는 지금 겨울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 추위에 떨고 있다”며 “단돈 1달러로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4만 6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튀르키예 현지 지진학자들은 이번 강진이 이어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닥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튀르키예 디야르바키르 지역에서 지난 6일 지진이 발생해 실란 바이람씨의 친구들이 거주하던 9층 규모의 건물이 무너졌다. <실란 바이람씨 제공>

## SNS에 해킹 광고...언론사·결혼업체 고객정보 700만건 빼내

경쟁업체 사이버 공격 대항도

전남경찰 5명 입건 검찰 송치

SNS를 통해 “주식 DB(데이터베이스) 해킹부터 모든 해킹 의뢰 다 받습니다”라고 광고해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경쟁업체 홈페이지에 대해 사이버공격까지 대행해준 범죄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8)씨, 해커 B(25)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SNS를 중심으로 해킹 의뢰 채널을 운영하며 경제 전문 언론사, 결혼정

보업체 등 385개 웹사이트에서 약 7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3500억 규모의 도박사이트 15곳을 운영하면서 해킹까지 범죄를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관계의 다른 불법도박업체 홈페이지를 황금 시간대에 먹통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된 해킹이 타업종의 경쟁업체 사이버 공격 대항부터 개인정보 유출까지 번진 것이다.

이들은 백신을 내려 받으라고 하며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해 각종 웹사이트 관리자 권한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피해를 본 웹사이트 가운데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곳은 없었는데 대부분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난이도와 개인정보양에 따라 각각 100만~

500만원의 의뢰 비용을 받은 A씨 일당이 개인정보를 빼내는데 걸린 평균시간은 1주일이었던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결혼정보업체와 경제언론사에서는 각각 30만 건·2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이상 해킹된 사이트도 있었다. 해킹된 개인정보에는 이름·주소·전화번호 뿐 아니라 출신대학·연고지·연봉·주식투자액·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 수익금 10억 원가량을 추징·보전하고, 개인정보 재판매나 다른 범죄 악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A씨 일당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3500억원의 수익이 발생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또 해킹을 의뢰한 업체나 개인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박병태 광주지법원장·배기열 고법원장 취임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법원의 새 수장들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박병태(56·사법연수원 25기) 신임 광주지방법원장과 배기열(58·사법연수원 17기)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20일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한 사법권을 실행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두 수장 모두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며 신뢰 받는 법원, 정의로운 재판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장흥 출신인 박 지법원장은 “법원이 그동안 좋은 재판을 하려고 애써왔지만 국민의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라며 “공정하고 사심 없이 재판함은 물론 판결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박 지법원장은 “지금 법원은 영상재판을 활성화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있다”며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요구와 새로운 재판 업무 환경을 수용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 지법원장은 서울오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배 고법원장도 이날 취임식에서 “법관들은 법정 안팎에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과 처신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병태 지법원장

배기열 고법원장

“정치·사회 세력, 이익단체, 변화무쌍한 여론, 사법행정권 등 압력으로부터 독립돼 공정하게 법과 양심, 성찰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론을 내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의 독립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법의 대원칙이며, 재판은 승자와 패자가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배려와 경청의 자세로 심리하고 시의적절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고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북구 기부채납 거부 건설사 소송 추진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지자체에 아파트진출입로와 인근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약속한 건설회사가 2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치구가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는 도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A산업개발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추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업체는 아파트 진출입로와 인근 도로 140여m를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8년 1월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370세대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A업체는 2020년 10월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약속한 기부채납은 현재도 이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2020년 “기부채납 조건이 과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A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구 담당자는 “그동안 A산업개발에 4차례 기부채납 이행 독촉을 했지만, 응답이 없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결판 판매 중

이방인

문이당 | 15,000원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